

LA VIE EN FRANCE? TRES BIEN!

기계공학과 김유성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열린 UTT Summer School을 통해 한 달간 프랑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UTT에 관심이 있지만, 막상 아는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으시겠죠? 준비 과정 같은 것은 다 빼고 UTT에서 지낼 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들만 문답 형식으로 썼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참고로, UTT에서 한 달간 생활하는 것과 한 학기를 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I. QUELQUE CHOSE DE TROYES (Troyes에 대해서)

Troyes(프랑스어 발음으로 '트와')는 UTT가 위치한 도시로, 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쁘띠 프랑스'라고도 불리는 Troyes는 파리와 비교하면 소도시이기 때문에 물가도 저렴하고, 파리에서처럼 소매치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8월 초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밤에도 더워 잠을 못 잘 수 있고, 중순 이후부터는 햇빛은 좋지만 여우비가 내려서 가디건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닐만한 날씨가 됩니다.

2. MA MAISON DANS LA FRANCE (프랑스에서의 내 집)

UTT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UTT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그렇게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의 다른 기숙사와 연결해주어 그곳에 살도록 하는데,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와 시내에 있는 기숙사,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또 하나의 기숙사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저는 10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다른 기숙사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가 가장 지내기 좋으며, 다른 기숙사들은 버스를 타야 하지만 방이 넓고 근처에 상가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걸어서 통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밖에 없는 L'ADPS 기숙사는 신청하지 마세요.

3. J'AI ME MANGER (저는 먹는 것이 좋아요)

프랑스 물가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그 이야기는 외식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파리를 기준으로 프랑스 물가를 말하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것인데, 프랑스는 농경 국가라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웬만한 모든 식료품이 우리나라보다 저렴합니다. 더군다나, Troyes에서의 외식은 우리나라의 외식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가지고 온 예산으로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PAYS DE LA BAGUETTE (바게뜨의 나라)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인들은 바게뜨가 주식입니다. 고기와 바게뜨, 치즈와 바게뜨, 초콜릿과 바게뜨 등등 우리나라의 밥 대신 먹는 탄수화물 섭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빵을 좋아하는 분들은 금방 적응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리얼로 대체하거나 '전자레인지로 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오시면 프랑스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프랑스에서는 어떤 빵집을 가서 어떤 빵을 골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맛있고 저렴하니, 바게뜨 말고 다른 빵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OU EST CARREFOUR (Carrefour가 어디 있나요)

Troyes에서 지내면서 UTT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곳이 Carrefour(프랑스어 발음으로 '카르푸' 또는 '까르푸')인데, 이곳은 프랑스의 대형마트 체인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며, 빵에 적응하지 못한 동양인을 위한 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제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 놀라고, 파리에서 먹었던 그 샌드위치와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비싸게 받았던 것인지 알게 되며 다시 한 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6. MON NOUVEAU AMI (나의 새로운 친구)

제가 있던 8월은 방학이라서 UTT 학생은 거의 없었고,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단기 유학을 온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같이 유학 온 한국인들끼리 다녀도 되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다녀도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외국인들이 알아서 알아듣고 이해해주니깐, 너무 걱정 말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 QUEL EST PROJECT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가 뭔가요)

이번 Summer School에서는 프랑스어 수업과 함께 Project Management 수업이 개설되었는데, 이 수업은 다른 곳에서 오신 교수님과 함께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영학 수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아침 8시부터 수업을 시작했던 것을 빼고는 그리 어렵지 않은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조별 과제도 있지만 다른 나라 친구들과 친해질 좋은 기회가 되며, 우리나라에서처럼 많은 것을 시키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8. JE NE PARLE PAS EN FRANCAIS (저는 프랑스어를 못해요)

방학 때 UTT로 온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프랑스어를 할 줄 몰라 조금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문장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UTT에서 진행하는 프랑스어 수업은,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을 얹혀놓고 프랑스 선생님이 프랑스어만 사용하여 프랑스어를 가르칩니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아마 어이가 없어서 계속 헛웃음이 나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그 동안 쌓아왔던 눈치로 어느 정도 알아듣고 질문이 가능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지냈던 시간이 한 달이라서 즐거웠고, 한 달이라서 섭섭했으며, 한 달이라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 후기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 Summer School이나 단기 유학을 UTT로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LA VIE EN FRANCE? TRES BIEN!

(프랑스에서의 생활? 최고야!)